

일본 출판계의 저작권 대책

세번째의 저작권 紀行 1

韓勝憲

한국저작권연구소장·변호사

저작권 집중처리機構 설립 추진

세번째의 '저작권 기행'——우여곡절 끝에 겨우 얻어낸 일본정부의 비자를 들여다보면서 이번 여행의 성격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채색해 보았다.

10월 30일부터 10여일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나는 저작권에 관계가 있는 정부기관, 단체, 연구실, 에이전시 그리고 법률사무소 같은 곳을 찾아다녔고, 그러는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났다. 결코 넘겨지 못한 기간이었는지라 走馬看山이란 말이 생각날 정도이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몇가지 見聞을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서적출판협회(書協)를 방문한 것은 11월 4일 오후였다. 사전에 안내를 요청해주시고 협회의 고문이자 일본 출판(학)계의 최연장 원로인 누노가와와(布川角左衛門)선생, 그 협회의 저작권 담당역이자 저작권집중처리기구 설립준비위원인 노노무라(野久村敏)선생, 그리고 협회 전무이사 무라야마(村山貞也)씨, 이렇게 세 분과 일본 출판계가 당면한 저작권 문제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본의 서협이 수행중인 저작권대책 가운데는 저작권집중처리기구의 설립준비와 版權의 법제화 추진을 들 수 있다.

① 저작권집중처리기구의 설립문제…… 출판물의 무단 복사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저작자단체와 출판자단체가 공동으로 집중처리기구를 설립하여 서로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그에 대한 논의가 거듭된 끝에 금년 4월에 그 설립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 관계 각 단체의 추천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들이 회합을 거듭해왔

다. 준비위원회 안에는 사용료나 권리처리문제 등을 담당하는 업무전문위원회와 법인 설립의 준비나 협의 홍보 등을 맡는 총무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오늘날 일본에는 약 190만대의 복사기가 보급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복사행위에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일일이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곤란을 덜기 위하여 저작권자 개개인이 행사할 권리를 집중처리기구에 위탁하여 권리의 처리(허락·대가의 청구)를 행하도록 하려는 것이 저작권집중처리제도이다.

미국의 CCC(Copyright Clearance Center)는 그 좋은 선례라 할 것인데, 우리 한국에서도 이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② 판면권 조항의 신설 추진…… 현행 일본 저작권법은 판면에 관한 출판자의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출판물의 무단 복사에 대해서 저작(권)자 아닌 출판자로서는 유효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서 출판자의 창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출판물의 인쇄면(판면)을 보호하는 권리를 저작권법에 신설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일본의 서협은 일본잡지협회, 자연과학서협회, 출판재회(梓會) 등 출판 4단체가 판면에 관한 권리의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마침내 국회 양원의 문교위원회와 문화청에서도 그 필요성을 긍정하게 되었고, 1985년에 저작권심의회 제 8 소위원회를 새로 발족하여 출판자에 대한 법적 보호문제를 심의하도록 하였다. 그 위원회는 지금까지 17차례의 회합을 거듭해왔는데, 이제는 총괄적인 심의단계

에 접어들었다. '판면권'을 저작권집점으로 보려는 점은 대체로 합의 되었으나, 권리의 성질을 허락권으로 할 것인지, 보수청구권으로 할 것인지, 또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권리를 신설할 경우에도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등은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판면권 조항의 신설문제는 우리 한국의 출판계에서도 한번쯤 논의가 있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印稅 지급방법도 변경

③ 출판계약서 표준 書式의 개정…… 서협이 작성, 권장해오던 출판계약서 서식이 금년 초에 개정되었다. 그 요점은 인세 지급의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조항의 변경이라 하겠다.

종전에는 발행부수 기준의 인세 산정방식 즉, 정가×인세율×발행부수=저작권사용료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구미 여러나라처럼 보증인세의 선불금 및 판매부수 기준의 인세 지급방식으로 바뀌어놓았다. 이에 관한 계약서의 조항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하다.

▲제16조(저작권사용료 및 지불방법·시기)

1. 을(출판권자)은 갑(저작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한다.

저작권 사용료	지불방법·시기
실판매부수 1부마다	보증분의 지불에 관하여
보증부수 부	보증분을 초과한 분의 실판매
보증금액 원	부수보고와 지불에 관하여

2. (생략)
3. 갑은 유통과정에서의 파손, 오손 등 부득

이한 사유에 의하여 폐기처분한 부수에 대하여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요컨대, 한 출판물의 발행에 있어서 먼저 보증부수에 대한 인세를 보증금액으로 선불하고, 그 이후는 그 보증부수를 초과하는 판매부수에 대해서만 인세지급의무를 지게끔 약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발행부수 전부를 인세 산정의 기초로 삼아 온 지금까지의 계약관계를 크게 전환시키는 것으로서 출판사측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반면 저작권자로서는 불만스러운 변화라 할 것이다. 특히 출판사측에서 발행부수와 실제 판매부수를 성실하게 알려주는 등으로 신뢰감을 얻기 전에는 실효성이 적다고 하겠다. 바꾸어 말해서, 저작권자와 출판사간의 신뢰성이 보장된 다음에야 제도 자체의 합리성도 납득될 수 있을 것이다.

④ 저작권에 관한 상담 및 연수…… 서협은 매주 제2·제4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협회관에서 저작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서협의 저작·출판문제 담당역인 앞서 말한 노노무라, 도요다(豊田龜市), 사사키(佐佐木繁) 씨가 이 상담에 응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자문과 권고 등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서협의 인사·연수위원회가 주최하는 저작권연수회는 테마별 집중 연구를 계속해나감으로써 광범한 호응을 얻고 있다. '저작권 상담에 나타난 인공과 전제'를 주제로 삼아서 열린 지난 7월 25일의 제 4 회 연수회에는 150사의 240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한길역사강좌

이 책들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한길역사강좌에서 행한 강의 내용을 새로운 언어로 집필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 1 한국민족운동의 이념과 역사

권 박현채·강만길·신용하·송진호·박태순·김진균

제 2 한국의 사회사상

권 이우성·윤서순·김태영·임형택·고은

제 3 한국현대사와 역사의식

권 진덕규·강만길·신용하·임현영·김윤식·이영희

제 4 한국의 기층문화

권 김용운·윤서석·신영훈·전경수·김동욱·조봉운

제 5 한국의 사회경제사

권 김태영·이영훈·이호걸·유인호·박현채·이대근

제 9 오늘의 일본을 해부한다

권 박영재·유인호·이정복·차기범·이도형·김용운
* 각 권 값 2,200 원 내외

한길사 전화 922-9521~5

여순사건에서 6·25에 이르는
小説民衆史의 놀라운 성과

太白山脈

趙廷來 大河小説

● 小作地를 빼앗긴 농민들의 항거

● 地主들과 극우세력의 음모

● 빨치산의 습격과 국군의 반격

제 1부 恨의 모닥불(전 3권)

제 2부 민중의 불꽃(전 2권)

* 각권 값 3,000 원

한길사

전화 922-9521~5

제 2 부 출간

中國의 古代神話

袁珂 著/鄭錫元 譯

예로부터 지리적 환경 때문에 우리의 동일문화권을 형성해 오면서 생활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중국의 문화와 그 민족성을 그들의 고대 신화를 통해서 이해하며 그곳에서 우리 문화의 모습을 찾아 볼 뿐 아니라 원시 인류의 사유형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 신국판/378면/4000원

文藝出版社

나의 오빠 니진스키

니진스카 著/李德姬 譯

니진스키의 누이동생 브로니슬라바 니진스카에 의해 쓰여진 획기적인 전기로 그간의 니진스키에 대한 수많은 의혹과 오해를 풀어주는 결정판. 「지젤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 니진스키 미학에 관한 해명과 그의 안무예술에 대한 평가, 당시 러시아 지방 발레에 대한 정보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 신국판/342면/4000원

文藝出版社